

# 옛 광주교도소 발굴 조사 내달로 연기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를 찾기 위한 옛 광주교도소의 발굴 작업이 30일에서 11월로 미뤄졌다. 발굴 조사를 위한 업무 협의가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입장 때문인데, 협의 기간이 길어질 경우 압매장지 발굴이 기약없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30일 옛 광주교도소 답장 밖 압매장 추정 장소로 발굴하려던 계획이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연기됐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는 31일 오전 10시 법무부와 광주시, 5·18 3단체, 5·18기념재단, 발굴기관의 실무자가 만나 광주교도소 발굴 조사에 대한 업무 협의를 하자'는 내용을 재단 측에 통보했다.

재단은 당초 이날까지 법무부와

## 5·18 재단 "법무부, 조사 위한 업무 협의" "기약없이 발굴 미뤄질 수 있다" 우려 제기

협의를 마친 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30일부터 본격적인 발굴 조사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계획이 틀어졌다.

법무부는 '발굴 방식과 유해 발굴시 안전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싶다'는 내용을 재단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협의가 길어질 경우 11월 내 발굴 조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영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겨울을 앞두고 있어 마음이 급하다. 땅이 얼거나 눈이 오면 발굴

이 어려워진다"며 "늦어도 11월말까지는 발굴 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약없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기념재단이 우선 발굴하려는 장소는 교도소 북측 답장 바깥쪽 전체 300m 중 폭 3~5m, 길이 117m 구간이다. 80년 5월 당시 공수부대의 순찰로 인근 땅으로 일부는 농장으로 사용했고 3공수여단 16대대가 주둔했던 곳이다.

기념재단은 3공수여단 본대장이었던 김도 소령이 1995년 5월29일 서울지검 조사 당시 작성한 약도와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이 곳을 압매장 추정 장소로 특정했다.

김 소령은 검찰 조사에서 '전남대에서 방송차량을 이용해 교도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2~3명이 밝혀서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교도소 답장에서 3m 정도 이격해 매장했다, 잡초가 우거졌고 논과 밭, 그리고 500m 전방에 낮은 능선이 있다', '관을 사용하지 않았고 가마니로 시신 2구씩 덮고 묻었다, 5월23일 오후 6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전남대에서 광주교도소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3명을 포함해 12구의 시체를 매장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으며 '약도까지 첨부했다'.

이윤규 기자

## 일본서 100달러 미화 위조 지폐 수십장 발견

수십장의 미화 100달러짜리 위조 화폐가 일본 도쿄에서 발견돼 당국에 수사에 착수했다고 NHK가 29일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위조 지폐가 이번달 초 환전을 처리하는 도쿄의 4개 시설에서 발견됐다고 전했다. 4개 시설 직원들은 질감에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위조 지폐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개인 시설에 검사를 요청했다.

그러자 해당 시설에선 지금까지 수십장의 위조 지폐를 찾아냈다. 위조 지폐들은 언뜻 보기에는 일반 지폐와 다른 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앙의 파란색 줄이 약간 다르게 보이고, 오른쪽 아래의 디자인이 자외선에 노출되면 황록색으로 변한다고 말했다.

환전소에서는 통상 기계를 사용해 위조 지폐를 찾아낸다. 지폐에 사용된 염료를 측정해서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계가 위조된 지폐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다.

## 소말리아 호텔 폭탄테러 사망자 23명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의 한 호텔 밖에서 28일(현지시간) 차량을 이용한 자살 폭탄테러가 발생해 최소 23명이 숨지고 30명 이상이 다쳤다. 보안군이 건물 안에 진입해 수색을 계속하는 동안 폭발음이 두 차례 더 들렸고 그 중 한번은 진입군이 자살폭탄 조끼를 분해하면서 일어났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모가디슈의 대통령궁 근처에 있는 '나사 하블로드' 호텔로, 모하메드 후세인 집압군대령은 AP통신과의 통화에서 정부 고관들을 포함한 20명 넘는 사람들이 호텔 폭탄 테러 중에 숨어있는 무장 테러범들에게 인질로 잡혀있다고 말했다.

테러범 일당은 5명으로 그 중 3명이 살해당했다고 그는 말했다. 다른 2명은 수류탄을 던지며 저항했고 건물의 전기를 차단해 밤이 오면서 그곳은 암흑이 되었다.

모가디슈에서는 2주 전에도 폭탄 테러사건이 일어나 시내 가장 번화한 거리에서 대형 트럭의 폭탄이 터져 35명이 사망하는 이 나라 최악의 테러 참사가 일어났었다.

사건 직후 아프리카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알-샤비브'가 배후를 자처하고 나섰으며, 호텔 내부에서 총격을 벌이는 것도 이 단체의 조직원들이라고 주장했다.

후세인은 피살자 가운데에는 엄마와 세 아이도 있었으며 그 중 한 명은 아기였고 모두 머리를 총에 맞아 숨졌다고 말했다. 전직 소말리아 경찰 대령과 전직 국회의원도 살해당했다. 사건 현장 사건에는 뒤뜰린 차량들과 유리창이 모두 깨져 벽만 남은 열 건물도 드러났다.

생존자인 모하메드 데크 하지는 주차된 차 옆을 걸어가는 데 폭탄이 일어났고 차량은 대파되었지만 자신은 어깨와 머리에 유리파편으로 상처를 입었지만 살아남았다고 병원 참치에서 말했다. 그는 호텔 현관에서 폭탄이 일어난 뒤 무장한 군복 차림의 남자 최소 3명이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호텔에 진입하는 알-샤비브 전사들이었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전의 폭탄 테러에서도 군인복장으로 위장했다고 목격자들이 말했다. 경찰은 범인들이 트럭 정문 앞에서 트럭이 고장난 척 하면서 차를 멈추고 경비가 삼엄한 호텔 앞에서 차를 돌리는 순간 폭탄을 터뜨렸다고 말했다.

## 네팔서 버스 강으로 추락...최소31명 사망

네팔 중부 다단에서 28일(현지시간) 버스 1대가 강으로 추락해 최소 31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했다.

이 버스는 이날 오전 네팔 동부의 라지비라지에서 출발해 카트만두로 향하던 중, 산 중턱 2차선 고속도로에서 절벽으로 미끄러지면서 강으로 추락했다.

사고 지점은 카트만두에서 동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지점으로, 절벽 아래에는 빠른 유속으로 유명한 트리쿨리 강이 흐른다.

사고 소식에 군 구조대 및 다이버들이 현장으로 출동해 강을 수색한 끝에 시신 31구를 수습했지만, 사망자 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다.

네팔 당국은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으며, 강의 유속이 빨라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버스에는 60명이 넘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승객 대부분은 힌두교 차트 축제 기간을 맞아 고향에 내려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가을에는 단풍길을 걸어요 원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양재천 일대에서 열린 '단풍길 걷기축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단풍길을 걷고 있다.

## '잠 못 자는 고교생' 6시간 이내 수면율 광주 47% · 전남 46%

수면부족 전남 남자 초등생 전국 평균 3배

광주·전남지역 고등학생의 수면 양이 전국 고등학생 평균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학생 건강검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등학생 하루 6시간 이내 수면율은 43.91%로 조사됐다.

광주지역은 47.10%, 전남은 46.02%로 각각 전국 평균보다 3.19%, 2.11% 높았다.

잠을 적게 자는 광주·전남지역 고등학생이 전국 평균보다 많다는 의미다.

고등학생 중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수면양이 더 적었다. 광주는

남학생 40.05%, 여학생 54.65%, 전남은 남학생 37.53%, 여학생 55.34%다.

특히 전남지역 남자 초등학생의 하루 6시간 이내 수면율은 9.93%로 전국 평균 3.30%보다 3배 가량 많아 수면이 부족한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광주가 초등학생 63.14%, 중학생 78.19%, 고등학생 80.65%이고, 전남은 초등학생 67.16%, 중학생 75.11%, 고등학생 76.22%로 집계됐다.

아침식사 결실률은 광주가 초등학생 4.82%, 중학생 17.34%, 고등학생 17.11%이고, 전남은 초등학생

5.66%, 중학생 13.24%, 고등학생 15.97%로 조사됐다.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은 광주가 초등학생 55.78%, 중학생 41.00%, 고등학생 23.89%이고, 전남은 초등학생 50.03%, 중학생 36.24%, 고등학생 24.03%로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운동량이 적었다.

김 의원은 "학업과 입시에 대한 부담으로 고등학생 절반 가량이 6시간 이하의 수면을 하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교육 현실"이라며 "청소년기에 수면이 부족하면 건강은 물론 학업 성적과 주의력에도 좋지 않을 수 있기에 무리한 야간자율학습이나 의무적 0교시 운영 등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인강길 5